

통계로 본 서울남녀의 결혼과 출산

정보공개정책과(행정국)

-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저출산 문제가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으며, 저출산의 영향은 인구감소 뿐만 아니라 인구구조의 대변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이에 대응하는 다양한 방안과 더욱 적극적인 정책적 관심이 필요로 되고 있음.
- ‘통계로 본 서울남녀의 결혼과 출산’에서는 인구규모 및 인구구조의 변동요인인 혼인과 출생관련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서울의 출산율 변화 추이 및 출산과 관련된 다양한 통계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제공하는 등 서울통계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
- 주로 활용된 자료는 서울시에서 공표하고 있는 2013년 서울서베이 및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출생통계, 혼인통계), 인구주택총조사(1990~2010년), 장래인구추계(2033년, 2040년) 등임.

● ● ● 목 차 ● ● ●

[요 약] 1

1. 결혼과 출산 시기 2

 1-1. 결 혼 2

 1-2. 출 산 4

2. 미혼 및 가임여성 인구 6

3. 출산율 변화 및 저출산 인식 7

 3-1. 출생아 수 및 조출생률 7

 3-2. 합계출산율 8

 3-3. 저출산의 영향(2033년^o 인구구조 전망) 9

 3-4. 저출산 심각성 인식 정도 10

자료설명 및 유의사항

○ 2013 서울서베이(서울시)

- 작성목적 : 서울시정 및 시민생활의 만족도 등을 파악하여 시정 관련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
- 작성방법 : 만15세이상 서울시민 약 47,384명(표본가구는 2만 가구)을 대상으로 가구방문 면접 조사된 내용을 집계한 결과임.
- 조사대상 기간(시점) : 2013. 10. 20. ~ 2013. 11. 25/ 조사주기 1년(매년)

○ (인구동향조사-출생통계) 통계청

- 조사목적 : 인구규모 및 구조의 변동요인인 출생현황 파악,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
- 기초자료 : 「통계법」,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 읍·면·동사무소 및 시·구청에 신고한 출생신고서의 내용을 집계한 결과임
- 조사주기 : 1년
- 작성근거 : 통계법 제18조제1항 규정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10103호, 인구동향조사)
- 작성시점 : 매년 12월 31일 기준
- 주요용어
 - ▶ 연령별출산율(Age-specific Fertility Rate : ASFR) : 1년간 발생한 모의 연령별(15~49세) 출생아수를 당해 연도 해당 연령별 여성의 연앙인구(7월1일 기준)로 나눈 수치를 1,000분율로 나타낸 것
 - ▶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 TFR) :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낸 지표로서 연령별 출산율(ASFR)의 총합이며, 출산력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임.

○ (인구동향조사-혼인통계) 통계청

- 조사목적 : 인구규모와 구조의 변동요인인 혼인 및 이혼 현황을 파악하여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
- 기초자료 : '통계법'과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3.1.1.~2013.12.31.일까지 전국의 읍·면사무소 및 시·구청에 신고한 혼인신고서의 신고내용
- 작성근거 : 통계법 제 17조 규정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10103호, 인구동향조사)
- 작성시점 : 매년 12월 31일 기준

○ 자료이용 시 유의사항

- 통계표 구성비 및 증감률은 반올림한 값으로 하위분류 합이 상위분류 합과 일치하지 않거나, 원자료로 계산한 값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조사자료는 조사대상, 표본규모 및 설계 방법 등을 달리하는 타기관의 조사 결과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용에 유의 필요함.

I . 요약

● (결혼과 출산시기)

☞ 결혼

- ▶ 평균초혼연령 지연 : 여성 1993년 25.7세 → 2013년 30.4세, 남성 28.5세 → 32.6세로 증가
- ▶ 2013년 혼인 중 여성 연령층은 25~29세(38.6%)>30~34세(37.9%)>35~39세(9.1%)>20~24세(4.9%) 순
남성 주 혼인연령층은 30~34세(46.8%)>25~29세(21.9%)>35~39세(16.2%)>40~44세(6.1%) 순
- ▶ 혼인(남성기준) 20년 새 33.5%(-3만5천건) 감소 : 1993년 10만4천건 → 2013년 6만9천건

☞ 출산

- ▶ 여성 평균출산연령 2013년 32.5세, 첫째아 평균출산연령도 2006년부터 30세 넘어서 2013년 31.5세 달함.
- ▶ 2013년 출생아 모(母) 연령 30~34세>35~39세>25~29세 순으로 2013년 35~39세가 25~29세 첫 추월
출생아 부(父) 연령은 30~34세>35~39세>40~44세>25~29세 순으로 2013년 40~44세가 25~29세 첫 추월
- ▶ 35세이상 모(母) 구성비 1993년 4.3%→2013년 23.4%로 증가, 20대 모(母)는 72.7%→22.5%로 감소
출생아 부(父) 중 35세이상은 1993년 13.9%→2013년 45.3%로 증가, 20대 부(父)는 39.8%→9.2%로 감소
- ▶ 첫째아 출산까지의 평균결혼생활기간은 1.93년, 결혼생활 후 2년 이전에 첫째아 낳는 비율 67.5%

● (미혼 및 가임여성 인구)

- ▶ 25~29세 미혼율(1990년 → 2010년) : 여성 29.4% → 80.2%, 남성 61.9% → 90.7%
- ▶ 가임여성 1993년 335만4천명에서 2013년 276만6천명으로 20년 새 17.5%(-588천명) 감소

● (출생아 및 출산율)

- ▶ 2013년 총 출생아 수는 8만4천명으로 통계작성이래('81년 20만3천명) 최저 수준
- ▶ 출생아 수는 1993년 17만6천명에서 2013년 8만4천명('93년의 48% 수준)으로 20년 새 절반 이하로 감소
- ▶ '13년 출생성비(여아 100명당 남아 수) 105.6명으로 2003년(106.5명)부터 정상성비(103~107) 수준 유지
- ▶ '13년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명당 평균 출생아) 0.968명으로 1993년 1.558명 대비 0.59명 감소
- ※ 서울 1982년 저출산 진입(합계출산율 2.1명 이하), 1998년부터 초저출산진입(합계출산율 1.3이하)

● (저출산 영향, 2033년^e 인구구조 변화 전망)

- ▶ 2033년^e부터 조사망률이 조출생률을 초과하여 마이너스 자연 증가가 시작될 전망
- ▶ 연령별 인구구조는 저 연령층이 더 좁아지고 고령층이 더 넓어지는 형태로 변화될 전망
연령별 인구구조(0~24세:25~54세:55세이상) = 2013년 25.4%:50.9%:23.7% → 2033년^e 19.3%:40.1%:40.6%
- ▶ 특히 핵심노동인구(25~54세)는 2013년 528만7천명 → 2033년^e 406만7천명으로 100만명이상 감소 전망
- ※ 조출생률 : 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 조사망률 : 인구 1천명당 사망자 수, 자연증가율 : 조출생률과 조사망률의 차

● (저출산 심각성 인식)

- ▶ 만20세이상 47.8%는 '우리사회(나라) 저출산이 심각하다고 인식, 18.5%는 심각하다고 생각 인함, 보통 33.7%
- ▶ 특히, 20대 여성의 심각성 인식률은 41.6%로 나타나 가장 높게 응답한 50대 여성 51.2%에 비해 9.6%p 낮음.

1. 결혼과 출산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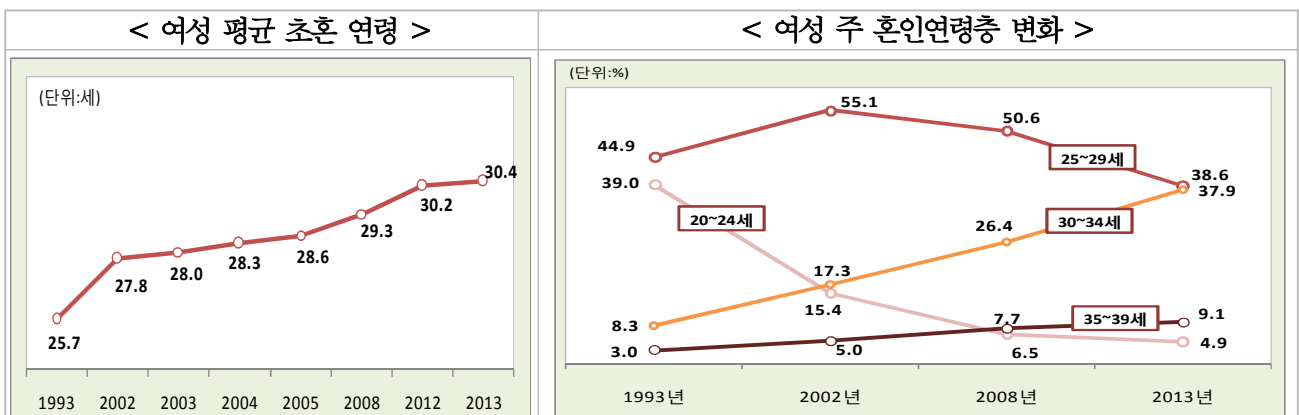
1-1. 결혼

- ▶ 여성 평균초혼연령 1993년 25.7세 → 2013년 30.4세로 20년 새 4.7세 증가
- ▶ 2013년 혼인 중 여성 연령층은 25~29세(38.6%)>30~34세(37.9%)>35~39세(9.1%) 순
1993년 혼인한 여성 중 39.0%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20~24세는 2013년 4.9%로 급격 감소
- ▶ 남성 평균초혼연령 1993년 28.5세 → 2013년 32.6세로 20년 새 4.1세 증가
- ▶ 2013년 혼인 중 남성 연령층은 30~34세(46.8%)>25~29세(21.9%)>35~39세(16.2%) 순

□ 결혼은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인임.

□ 먼저 서울여성의 평균초혼연령은 1993년 25.7세에서 2013년에는 30.4세로 높아졌으며, 여성의 주 혼인연령층은 1993년 25~29세>20~24세>30~34세 순에서 2013년에는 25~29세>30~34세>35~39세 순으로 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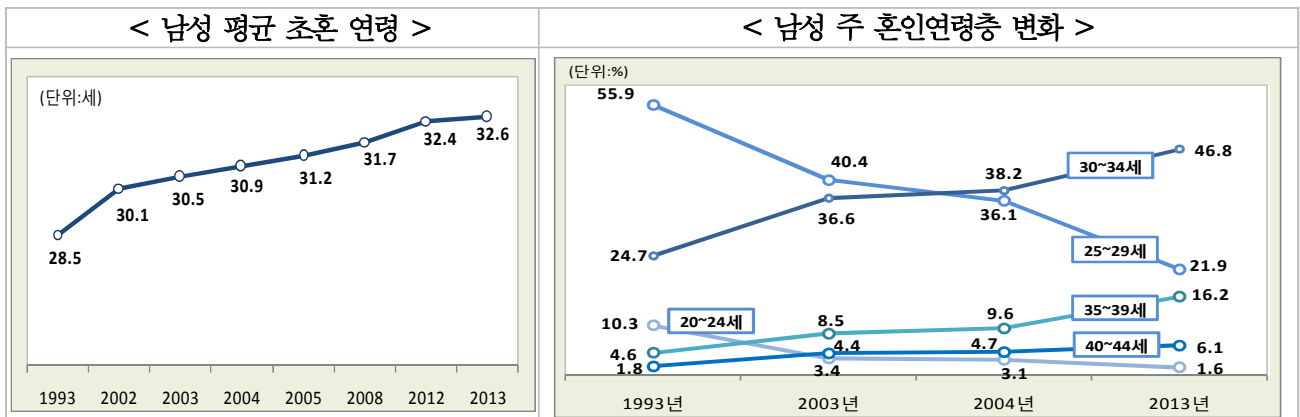
- 1993년 여성 주 혼인연령층은 25~29세 비중이 44.9%로 가장 높았으며, 20~24세 39.0%, 30~34세 8.3%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2013년 혼인 중 여성 연령층은 25~29세가 38.6%로 1993년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30~34세 37.9%, 35~39세 9.1%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20대 혼인이 줄고, 여성 혼인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여성 혼인의 주요 연령 구조가 변화하고 있음.



년도	여성 연령별 혼인건수 (단위:건, %)									여성 연령별 혼인 구성비 (단위:% %p)							
	전체	20세 미만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세 이상	전체	20세 미만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세 이상	
1993년(A)	96,215	2,227	37,481	43,165	8,000	2,873	1,120	1,340	100.0	2.3	39.0	44.9	8.3	3.0	1.2	1.4	
2002년	70,548	631	10,859	38,842	12,218	3,523	2,195	2,275	100.0	0.9	15.4	55.1	17.3	5.0	3.1	3.2	
2003년	68,594	482	9,268	37,474	13,322	3,463	2,216	2,367	100.0	0.7	13.5	54.6	19.4	5.0	3.2	3.5	
2008년	68,506	253	4,450	34,655	18,088	5,300	2,140	3,620	100.0	0.4	6.5	50.6	26.4	7.7	3.1	5.3	
2012년	71,839	209	3,283	29,807	25,921	6,172	2,418	4,029	100.0	0.3	4.6	41.5	36.1	8.6	3.4	5.6	
2013년(B)	69,801	273	3,408	26,917	26,422	6,362	2,466	3,953	100.0	0.4	4.9	38.6	37.9	9.1	3.5	5.7	
증감B-A	-26,414	-1,954	-34,073	-16,248	18,422	3,489	1,346	2,613	0	-1.9	-34.1	-6.3	29.5	6.1	2.4	4.3	
증감율	-27.5	-87.7	-90.9	-37.6	230.3	121.4	120.2	195.0									

*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혼인통계)」, 국가통계포털(KOSIS), 전체(계)에는 연령미상이 포함되어 있어 연령합이 계와 다를 수 있음.

- 남성의 경우 평균초혼연령은 1993년 28.5세에서 꾸준히 높아져 2013년 32.6세에 달함. 남성 혼인의 주 연령층은 1993년 25~29세>30~34세>20~24세>35~39세 순에서 2013년 30~34세>25~29세>35~39세>40~44세 순으로 변함.
- 1993년 남성 혼인 주 연령층은 25~29세 비중이 55.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30~34세 24.7%, 20~24세 10.3%, 35~39세 4.6% 등의 순이었음.
- 2013년 혼인 중 남성 연령층은 30~34세가 46.8%로 가장 높아졌으며, 25~29세 21.9%, 35~39세 16.2%, 40~44세 6.1% 등의 순으로 나타나 20대 혼인이 줄고, 혼인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남성 혼인의 주 연령 구조가 변화하고 있음.
- 남성 혼인은 2004년부터 30~34세가 감소 추세에 있는 25~29세 혼인을 추월하기 시작하였으며, 남성 혼인 연령이 높아지고 있어 4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도 1993년 4.1%에서 2013년 13.4%로 증가.



연도별	남성 연령별 혼인건수 및 구성비																
	남성 연령별 혼인건수 (단위:건, %)									남성 연령별 혼인 구성비 (단위:%, %p)							
	전체 (계)	20세 미만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세 이상	전체 (계)	20세 미만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세 이상	
1993년(A)	103,511	436	10,652	57,898	25,523	4,776	1,827	2,383	100.0	0.4	10.3	55.9	24.7	4.6	1.8	2.3	
2003년	72,750	142	2,474	29,356	26,642	6,210	3,235	4,690	100.0	0.2	3.4	40.4	36.6	8.5	4.4	6.4	
2004년	71,553	136	2,240	25,813	27,314	6,888	3,381	5,781	100.0	0.2	3.1	36.1	38.2	9.6	4.7	8.1	
2008년	71,753	89	1,481	22,206	28,171	10,525	3,521	5,760	100.0	0.1	2.1	30.9	39.3	14.7	4.9	8.0	
2012년	71,695	72	1,086	16,910	32,560	11,580	4,157	5,330	100.0	0.1	1.5	23.6	45.4	16.2	5.8	7.4	
2013년(B)	68,819	100	1,097	15,045	32,198	11,167	4,183	5,029	100.0	0.1	1.6	21.9	46.8	16.2	6.1	7.3	
증감B-A	-34,692	-336	-9,555	-42,853	6,675	6,391	2,356	2,646	0	-0.3	-8.7	-34.1	22.1	11.6	4.3	5.0	
증감률	-33.5	-77.1	-89.7	-74.0	26.2	133.8	129.0	111.0									

*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혼인통계)」, 국가통계포털(KOSIS), 전체(계)에는 연령미상이 포함되어 있어 연령합이 계와 다를 수 있음.

- 서울시민들의 결혼에 대한 견해를 보면, 만13세이상 여성은 39.9%, 남성은 27.9%가 결혼은 의무가 아닌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은 선택사항이라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남.
- 2012년 결혼에 대한 견해를 보면, 여성은 결혼은 해야한다(반드시 해야한다+하는 것이 좋다)가 56.3%, 선택사항 39.9%, 하지않아야 한다(하지 않는 것이 좋다+하지 말아야 한다) 2.1%, 모르겠음 1.8%로 응답함.
- 남성은 해야한다 68.5%, 선택사항 27.9%, 하지 않아야 한다 1.5%, 잘 모르겠음 2.1%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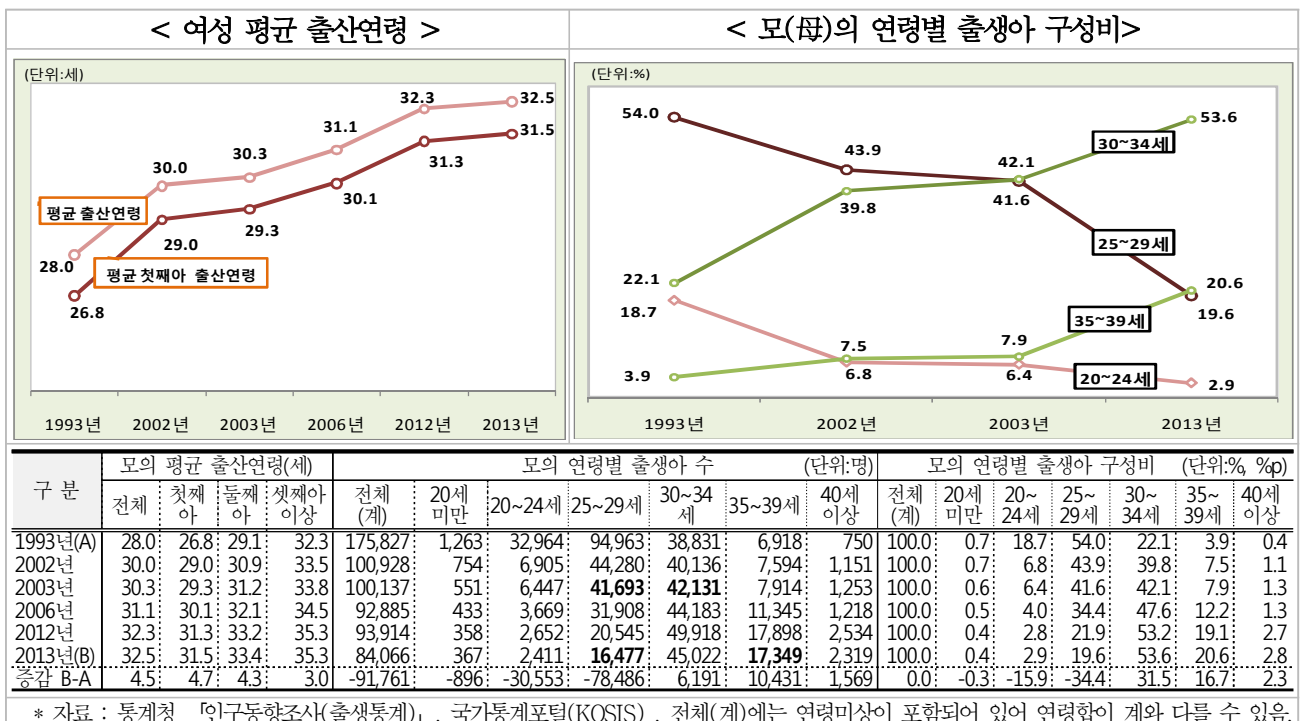
1-2. 출산

- ▶ 2013년 여성 평균출산연령 32.5세, 첫째아 평균출산연령도 31.5세로 2006년부터 30세 넘어
- ▶ 2013년 출생아 모(母) 연령 30~34세>35~39세>25~29세 순으로 35~39세가 25~29세 첫 추월 35세이상 모(母) 구성비 1993년 4.3%→2013년 23.4%↑, 20대 모(母) 72.7%→22.5%↓
- ▶ 2013년 출생아 부(父) 연령 30~34세>35~39세>40~44세>25~29세 순으로 40~44세가 25~29세 첫 추월 35세이상 부(父) 구성비 1993년 13.9%→2013년 45.3%↑, 20~29세는 39.8%→9.2%↓
- ▶ 부부가 결혼하여 첫째아 출산까지의 평균 결혼생활기간은 1.9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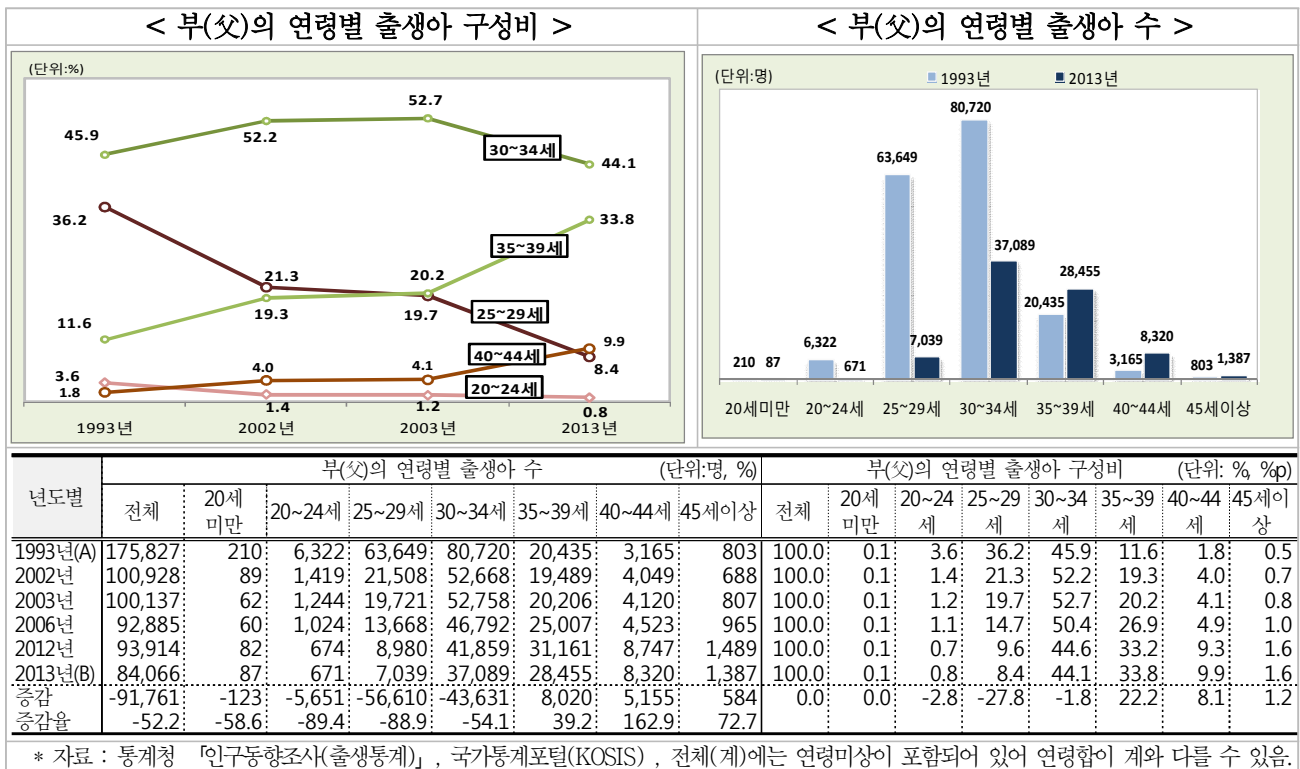
□ 결혼이 늦어짐에 따라 출산연령도 높아지고 있음.

□ 여성의 평균출산연령은 1993년 28.0세에서 2013년 32.5세로 높아졌으며, 특히 첫째아 출산연령도 1993년 26.8세에서 2013년 31.5세로 높아졌음. 모(母)의 연령별 출생아 구성비는 1993년 25~29세>30~34세>20~24세>35~39세 순에서 2013년 30~34세>35~39세>25~29세>20~24세 순으로 변화되었으며, 2013년 처음으로 35~39세가 25~29세 추월.

- 1993년 출생아 모(母) 중 25~29세가 54.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30~34세 22.1%, 20~24세 18.7%, 35~39세 3.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13년 출생아 모(母)의 연령별 구성비는 30~34세가 53.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35~39세 20.6%, 25~29세 19.6%, 20~24세 2.9% 등의 순으로 나타나 결혼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출산 연령도 높아지고 있어서 출생아 모(母)의 연령구조가 변화됨.
- 특히, 출생아 모(母) 중 35~39세는 2013년 처음으로 25~29세 모(母)를 추월하였으며, 전체 출생아 중 35세이상 모(母)의 비율이 1993년 4.3%에서 2013년 23.4%로 증가함.



- 남성도 혼인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출생아 부(父)의 연령 또한 크게 높아지고 있음. 출생아 부(父)의 주요 연령 분포가 1993년에는 30~34세>25~29세>35~39세>20~24세>40~44세 순이었으나 2013년에는 30~34세>35~39세>40~44세>25~29세>20~24세 순으로 변화되었으며, 2013년 처음으로 40~44세가 25~29세 추월함.
- 자녀 출생 시 부(父)의 연령은 1993년에는 30~34세가 45.9%로 가장 높았으며, 25~29세 36.2%, 35~39세 11.6%, 20~24세 3.6%, 40~44세 1.8% 등의 순이었음.
- 2013년에는 출생 시 부(父)의 연령 중 30~34세가 44.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35~39세 33.8%, 40~44세 9.9%, 25~29세 8.4%, 20~24세 0.8%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부(父)의 연령구조가 변화하였음.
- 특히, 2013년 처음으로 40~44세 부(父)가 25~29세를 추월하였으며, 전체 출생아 중 부(父)의 연령이 20대(20~29세)는 1993년 39.8%에서 2013년 9.2%로 급감한 반면, 35세이상인 비율이 1993년 13.9%에서 2013년 45.3%로 급증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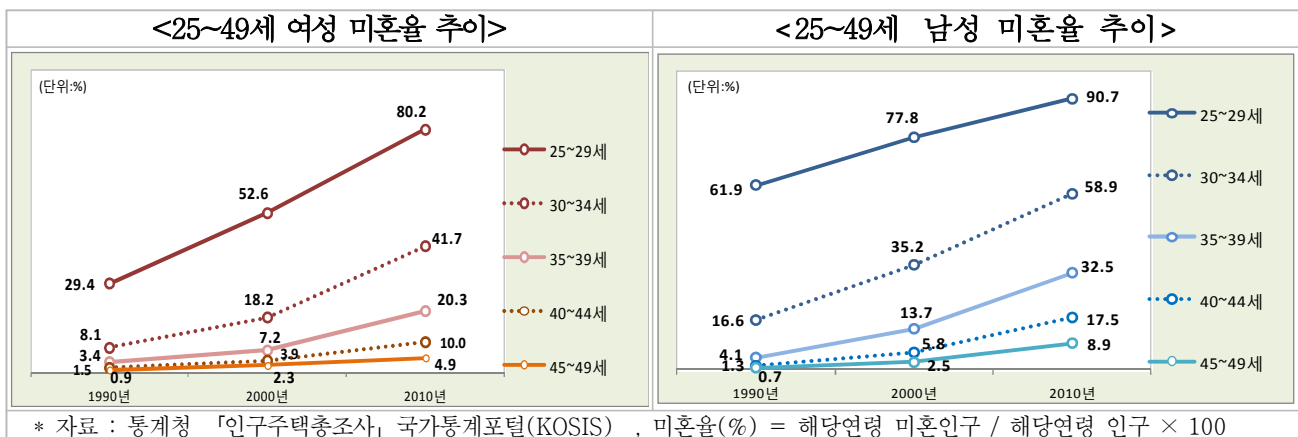


- 서울은 부부가 결혼하여 첫째아 출산까지 평균 결혼생활기간(법적인 결혼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결혼생활 시작에서 출산까지의 동거기간)이 1.93년으로 전국평균 1.77년 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부부가 결혼생활 후 2년 이전에 첫째아를 낳는 비율은 67.5%로 나타났으며, 2~3년 22.2%, 4~5년 6.4%, 6~9년 3.1%, 10년이상 0.7% 순임.

2. 미혼 및 가임여성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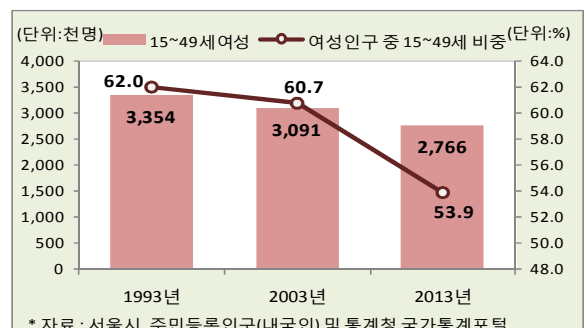
- ▶ 25~29세 미혼율(1990년→2010년) : 여성 29.4% → 80.2%, 남성 61.9% → 90.7%
- ▶ 가임여성 1993년 335만4천명에서 2013년 276만6천명으로 20년 새 17.5%(-588천명) 감소

- 결혼시기가 점차 늦어지고, 출산력의 기반이 되는 가임연령여성(만15~49세) 인구도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45세이상 남녀 미혼비율은 지속 상승하고 있음.
- 연령별 미혼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1990년대 결혼적령기로 불렸던 25~29세 미혼율이(여자 1990년 29.4% → 2010년 80.2%, 남성 1990년 61.9% → 2010년 90.7%) 크게 증가하여 2010년에는 20대 남녀는 솔로인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 미혼율은 여성의 경우 25~29세 29.4%→80.2%, 30~34세는 8.1%→41.7%, 35~39세는 3.4%→20.3%, 40~44세 1.5%→10.0%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남성의 경우 25~29세는 1990년 61.9%에서 2010년 90.7%로 증가, 30~34세는 16.6%→58.9%, 35~39세는 4.1%→32.5%, 40~44세 1.3%→17.5%로 급증하고 있음.
 - 또한 생애미혼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45~49세 미혼율을 보면 여성은 1990년 0.9%에서 2010년 4.9%, 남성은 1990년 0.7%에서 2010년 8.9%로 증가하고 있음.



- 15~49세 가임여성인구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

- 15~49세 가임여성(내국인)은 1993년 335만 4천명에서 2013년 276만6천명으로 지난 20년 새 17.5%(-588천명) 감소하였으며,
- 또한 15~49세 여성이 전체 여성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2.0%에서 53.9%로 줄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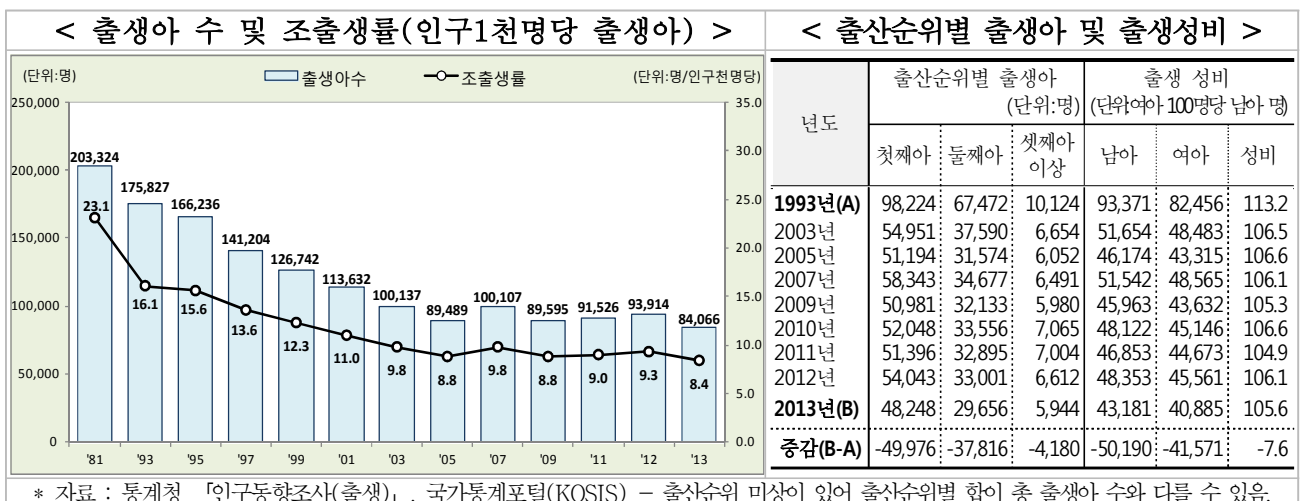
3. 출산을 변화 및 저출산 인식

3-1. 출생아 수 및 조출생률

- ▶ 2013년 총 출생아수는 8만4천명으로 통계작성이래('81년 20만3천명) 최저 수준
1993년 17만6천명에서 2013년 8만4천명(1993년의 48% 수준)으로 20년새 절반이하 감소
- ▶ 2013년 출생성비는 105.6명으로 2003년(106.5명)부터 최근 10년 동안 정상성비 수준

※ 출생성비 : 여아 100명당 남아 수

- 결혼 및 출산시기가 지연되고, 주요 출산연령층의 미혼율 증가(혼인 감소)와 가임여성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출생아 수가 감소하고 있음.
- 2013년 서울 출생아 수는 8만4천명으로 1993년 17만6천명에서 9만2천명 감소하여 20년 전의 절반도 채 안되는 48%수준으로 하락하였음. 2013년 출생아 수는 통계작성('81년 20만3천명)이래 최저 수준임.
- 1993년에는 서울에서 하루 평균 482명이 태어났으나, 2013년에는 하루 평균 230명 출생함.
- 또한 인구 천명당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조출생률은 1993년 16.1명에서 2013년 8.4명으로 감소하였으며, 조출생률 역시 통계작성이래 가장 낮았음.
- 출생아 성별로 보면, 2013년 태어난 출생아 중 남아가 4만3천명으로 총 출생아 중 5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아는 4만1천명으로 48.6%임.
- 출생성비(여아 100명당 남아 수)는 1993년 113.2명에서 2003년 106.5명으로 감소한 이래 최근 10년 동안 정상성비(103~107)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2013년 총 출생아 8만4천명 중 첫째아가 4만8천명으로 57.4%를 차지하였으며, 둘째아 35.3%(3만명), 셋째아 이상이 7.1%(6천명명)이고, 출산순위 미상 218명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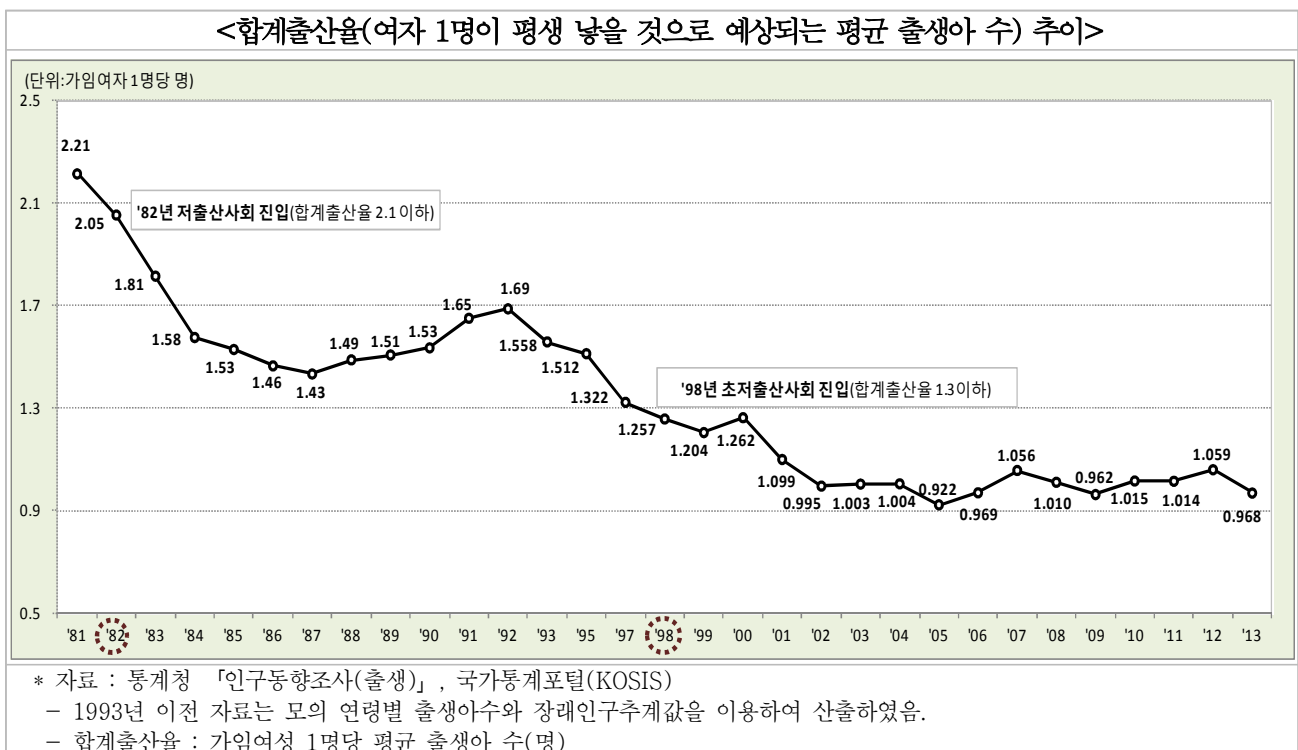


3-2. 합계출산율

- ▶ 2013년 합계출산율은 0.968명으로 1993년 1.558명 대비 0.59명 감소
- ▶ 1982년 저출산 사회진입, 1998년 초저출산사회에 진입하여 16년째 초저출산사회 못 벗어남

※ 합계출산율 : 가임연령(만15~49세) 여성 1명당 평균출생아 수

- 2013년 합계출산율은 0.968명으로 1993년 1.558명 대비 0.59명 감소하였으며, 2005년(0.922명), 2009년(0.962명)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수준임.
- 합계출산율 변화를 보면, 서울은 1982년 저출산사회(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 2.1이하)에 진입하였으며, 1998년부터는 초저출산사회(합계출산율 1.3이하)에 진입하여 16년째 초저출산사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1970년 3.05명이던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1982년 2.05명으로 인구대체수준(2.1명) 이하로 하락하여 저출산 사회에 진입하였음.
 - 이후 감소하다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 초에 약간의 상승 반전이 이루어진 것을 제외하고는 다시 감소하여 1998년 합계출산율 1.257명으로 초저출산 사회에 진입함.
 - 초저출산사회에 진입한 1998년 이후에도 합계출산율은 지속 감소하여 2005년 0.922명으로 최저수준 기록, 이후 0.96~1.06명 이내에서 증감을 반복하면서 초저출산사회를 벗어나지 못하였음.



3-3. 저출산의 영향(2033년^e 인구구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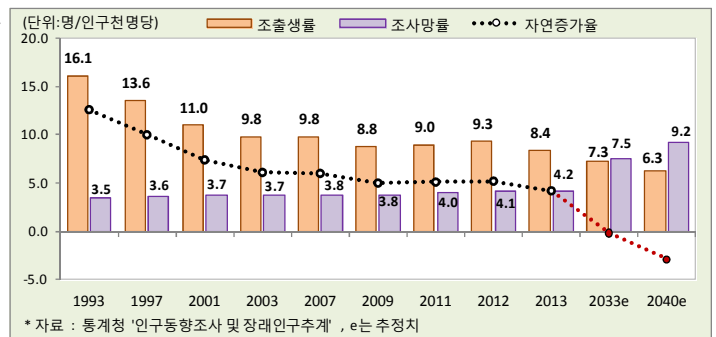
- ▶ 2033년^e부터 조사망률이 조출생률을 초과하여 마이너스 자연증가가 시작 될 전망
- ▶ 연령별 인구구조는 저 연령층 더 좁아지고 고 연령층 더 넓어지는 형태로 변화될 전망
0~24세:25~54세:55세이상 = 25.4%:50.9%:23.7%(2013년) → 19.3%:40.1%:40.6%(2033년^e)

※ 자연증가율 : 조출생률(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과 조사망률(인구 1천명당 사망자 수)의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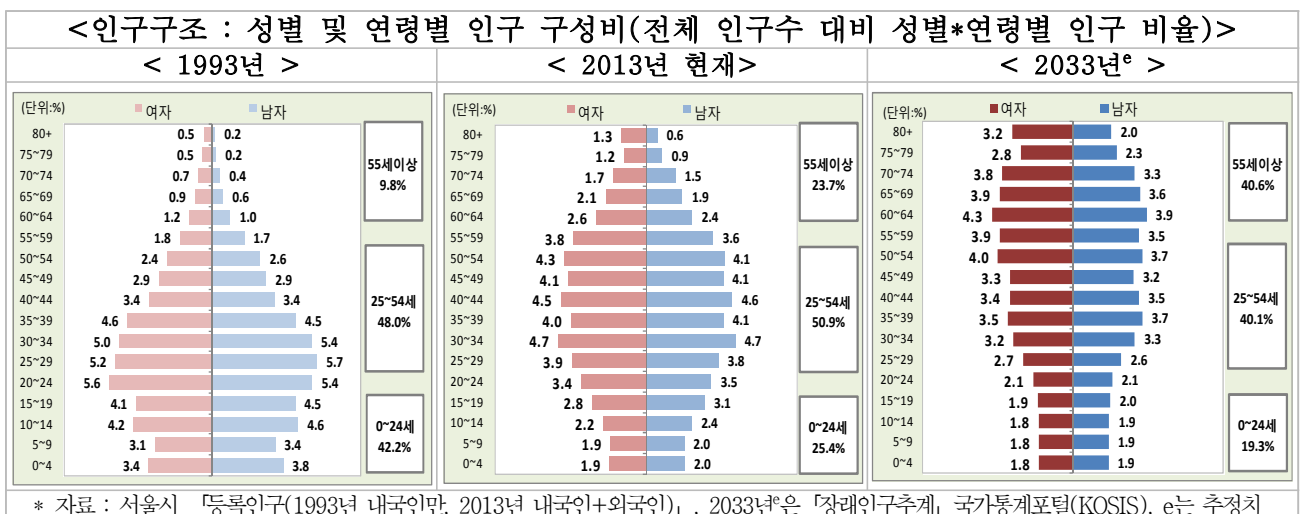
□ 이와 같은 출산율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사회가 고령화 되어감에 따라 향후 인구 자연증가율이 마이너스로 전환될 뿐만 아니라 연령별 인구구조를 크게 변화시킬 전망이다.

□ 먼저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서울의 출생아 수는 2033년^e에 7만4천명으로 2013년 8만4천여명 대비 1만 여명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음.

- 조출생률은 2013년 8.4명에서 2033년^e 7.3명으로 감소, 조사망률 2013년 4.2명에서 2033년^e 7.5명으로 증가할 전망.
- 이에 따라 2033년^e부터 조사망률이 조출생률을 초과하면서 마이너스 자연증가가 시작될 전망이다.



- 또한, 연령별 인구구조가 저 연령층은 더 좁아지고 고 연령층이 넓어지는 형태로 변화될 전망.
- 0~24세 인구 비중이 1993년 42.2% → 2013년 25.4%로 줄었으며, 2033년^e 19.3%로 감소할 전망, 55세이상 비중은 9.8% → 23.7%로 증가해서 2033년^e 40.6%로 증가 전망.
- 특히, 핵심노동인구인 25~54세는 2013년 528만7천명에서 2033년^e 406만7천명으로 20년 후 100만명이상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며,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50.9%에서 감소하여 2033년^e에는 40.1%로 절반을 훨씬 밑돌 것으로 예측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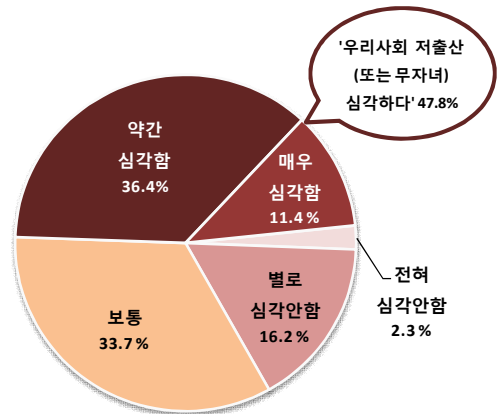


3-4. 저출산 심각성 인식 정도

- ▶ 만20세이상 47.8%는 '우리나라(사회) 저출산 심각하다고 인식' , 18.5%는 심각하다 생각 안해
- ▶ 여성의 경우 20대는 심각하다는 인식을 41.6%, 50대는 51.2%

□ 이런 상황임에도 서울시민들 중 '우리사회 저출산(또는 무자녀)이 심각하다고 인식' 하는 시민은 47.8%로 절반이 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시민은 10명 중 1명 정도에 불과했음.

- 2013년 만20세이상 서울시민들에게 '우리나라(사회) 무자녀 또는 저출산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은 11.4%, 약간 심각함은 36.4%로 응답하고 있어 심각하다는 인식을 하는 시민은 47.8%로 나타남.
- 또한 심각하지 않다는 생각은 18.5%(별로 심각안함 16.2%, 전혀 심각안함 2.3%)였음.



□ 특히 출산율 변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20대 여성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우리나라 저출산에 대해 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음.

- 저출산에 대한 심각성 인식에 남자는 47.5%, 여자는 48.1%로 응답하여 남녀 차이는 크게 없었던 반면,
- 연령별로는 50대가 가장 높고, 20대가 가장 낮게 응답하는 등 심각성 인식률에 대한 연령별 차이를 보이고 있음.
- 특히 20대 여성의 심각성 인식률은 41.6%로 나타나 가장 높게 응답한 50대 여성 51.2%에 비해 9.6%p나 낮았으며, 심각하지 않다는 생각에도 20대 여성은 23.5%로 응답함.

< 저출산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비율 >		< 우리나라 저출산에 대하여 심각성 정도의 인식률 > (단위: %)								
(단위: %)		2013년								
연령별	계	전체			남자			여자		
		심각 안함	보통	심각 함	심각 안함	보통	심각 함	심각 안함	보통	심각 함
20세이상	100.0	18.5	33.7	47.8	18.6	33.9	47.5	18.4	33.5	48.1
20대	100.0	23.2	33.8	42.9	22.9	32.8	44.3	23.5	34.9	41.6
30대	100.0	19.2	34.3	46.6	19.3	35.6	45.2	19.0	32.9	48.1
40대	100.0	17.3	34.0	48.7	16.0	34.4	49.6	18.6	33.6	47.9
50대	100.0	17.0	32.3	50.8	17.5	32.2	50.3	16.5	32.3	51.2
60세이상	100.0	17.0	34.1	48.9	18.5	33.9	47.6	15.7	34.2	50.0

* 자료 : 서울시 「2013 서울서베이」, 질문 : 무자녀(또는) 저출산이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